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4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통합 모델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 추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알맹이 없는 영·유아학교 추진 철회하라”

**교육부, 6월 유보통합 추진 계획 발표에 전교조 인천지부, 반대 기자회견 열어 핵심적인 통합 모델 발표 연기에 비판 발달 시기 무시한 '12시간' 돌봄 반발 사업 전면 재검토·현장 의견 수렴 촉구**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인천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계획 및 공모사업이 발표되면서 일선현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4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통합 모델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 추진은 예산낭비일 뿐이다”며 “졸속적인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전면 철회하고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아동 발달 시기 등을 무시한 12시간 기관 돌봄 보장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의 핵심 내용은 기본 8시간+4시간 총 12시간 기관 돌봄 보장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0~2세에 형성된 애착 관계는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고, 3~5세 유아 또한 장시간 기관보육보다는 가정에서의 개별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다”며 “가정 양육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대안 없이 보호자의 장시간 노동이나 쉼을 위한 12시간 기관 보육은 아이의 발달과정이나 학부모의 바램을 무시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준비 없이 시행했던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육현장은 큰 혼돈과 혼란을 겪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 학부모, 영유아 모두에게 돌아갔다”며 “수 십조 원으로 추진되는 유보통합 소요비용을 추가적 재정 보조 없이 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유초중등교육 모두를 재검토했던 상태

에 몰아넣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부가 정작 핵심적인 통합 모델의 내용 발표는 2024년 하반기로 연기하면서 통합 모델도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 추진부터 시작한 점도 짚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특히 지난해 추진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결과가 매우 부실한데다가 숲 체험 연수 등 정작 유보통합과 무관한 사업 추진 등 예산 낭비만 극심했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사업에 대한 평가나 공청회 없이 시범학교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한다고 교사들을 모으고 정작 교과서가 없는 지금의 현실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 관련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지난해 수탁 연구용 유아정책연구소 보고서를 공개하고 3~6개월 단위 계속 연기하는 단기 계획이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현장 교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이연수 기자, 사진=전교조 인천지부 제공

## 축산물 관리 단속에 '4곳' 꼬리 밟혔다

**사특사경, 가공업소 등 27곳 특별 단속 미신고 영업·보관법 위반 등 적발 시, 적발 업소 수사·검찰 송치 예정**



인천시는 지난 11일~22일까지 축산물 가공 유통판매업소 27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축산물 표시 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지역 내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27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즐겨 섭취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점검 결과 ▲식품 표시의 기준 위반 ▲축산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축산물 미신고 영업 등 위반 업소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일반 식육·포장육은 -2℃~10℃에서, 다른 육류보다 쉽게 변질되는 닭고 오리 식육은 -2℃~5℃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 오염 방지와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포장해 보관·운반·진열·판매해야 한다.

“가공·유통업소는 축산물 표시의 기준에 따라 식육의 종류·등급·소비가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고,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해 적발됐다.

“식육축산판매업소는 가금류 보존 및 유통 온도가 냉장(-2~5℃) 또는 냉동임에도 불구하고 생오리·삼계닭·토종닭 등을 실내 상온 상태에서 진열·판매했다.

“식육판매업소는 냉동 식육을 냉동창

고에 보관했고, ‘근’업소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산 육우·미국산 등 심 등을 판매하다 걸렸다.

시는 적발한 업소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질서를 위해 축산물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 홀로 있던 아이 납치 시도한 50대 남성 '실형' 선고

(지난해 7월)

**폭행 혐의 등 징역 6개월·법정 구속 인근 교사 발견·제지에 미수로 그쳐**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위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분쯤 인천 시내에 있는 길거리에서 B군(6)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동안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었다.

A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군을 위협했다. 그러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범행 10여 분 전 근처 편의점 앞에 있던 C군(8)에게 다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공 판사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인 기자

## 강화군, 바다에 조피볼락종 '60만 마리' 풀어줬다

**수산종자방류사업, 주문도 해역에 방생**

건강한 개체 방류로 '자원 증강' 목적 치어 적응 위해 불법 어업 근절 교육도

하는데 의의가 있다.

강화군에서도 어족자원의 고갈로 힘든 지역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4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군 연안 바다 중심으로 종자 방류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강화군이 수산 종자 방류사업으로 조피볼락 종자 60만 마리를 주문도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런 방류 사업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해 자원을 증강시키고자

올해도 5월 짚농어 종자 27만 마리를 주문도 해역에 방류했고, 지난 18일에는 어린 꽃게 82만 마리를 군 해역에 방류하기도 했다.

군은 수산 종자 방류 후에도 주변 어업인들에게 종자 방류 효과·어족자원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방류한 치어(치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특정 어구 사용 제한과 불법 어업 근절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연수 기자

# 서울의 중심에서 만나는

## 효율적인 광고 매체, 경기신문과 함께.

전광판광고 문의 031) 268-8330

**KTX 서울역 (고가로공원) 앞 남대문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일로 22-6 (남대문로7가) 탄골아트빌딩

**시흥IC. 신림역 - 서울대, 사당역 방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원로 1633 (신림동) 천도빌딩 8층

**자하철 2호선 흥대입구역 - 합정역 방향**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0 (서교동) 임오빌딩